

지역경제 살리는 '공공저작물 개방'

전남도·22개 시군 지역 캐릭터·상표이미지 활용 제품 판매로 이어져 여수 섬섬여수옥수수 울 19억 매출·순천시, 가상현실 관광 콘텐츠 개발

전남도가 올 한 해 도와 22개 시·군이 자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민간에서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적극 개방해 도민 편의를 제공하고 소득 창출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저작물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이다. 공공저작물에는 이용 조건에 따라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공공누리 마크가 붙어 있다. 개방유형(1~4유형)에 따라 출처표시, 상업용 금지, 변경 금지 등 이용조건을 지켜야 한다.

전남도와 시·군에서는 지역캐릭터 및 상표이미지(BI·Brand Identity)를 개방해 민간에서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했다. 그 결과 캐릭터·상표이미지 활용한 제품 판매로 이어져 민간 이익 창출로

확대됐다.

실제 여수에서는 섬섬여수옥수수 지역 캐릭터를 이용해 7개 업체에서 12개 품목의 상품을 개발, 올 한해에만 19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보성에서는 지역특산물 캐릭터(BS 삼총사)를 활용한 유튜브를 제작해 30일 만에 3000여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지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순천에서도 지역캐릭터를 활용한 증강현실 도보 안내 도우미 앱을 개발했고, 곡성에선 지역캐릭터를 활용한 야간형 실감 가상현실(VR)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활용함으로써 지역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전남도는 '2022-2023 전남방문의 해' 상표이미지를 각인한 티셔츠, 머그컵, 마스크 등 5만 개의 굿즈 상품을 배포하고, 현재 도내 업체가 생산한 제품에 상품 라벨링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전남도와 시·군은 저작권을 보유한 사진·영상 및 근대·고대의 역사·문화 자료를 개방해 도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전남도의 '마한역사문화 기록보관소', 목포의 목포 근대역사 자산 아카이브(www.mokponet.kr) 자료를 개방해 대학 등에서 학술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무안에서는 무안 관광사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www.muang.go.kr/photo)해 1049건을 개방했으며, 화순군은 경관사진 100여 점을 누리집에 개방해 민간에서 자유롭게 내려받아 활용토록 했다.

이 외에도 전남의 경쟁력인 향토음식 레시피 등 콘텐츠를 공개해 민간 사업화를 지원했다. 곡성군이 개발한 깨비정식 레시피를 개방해 곡성읍내 3개 민간식당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전복과 전남 일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해 먹거리를 개발 중이다.

양국진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앞으로도 양질의 저작물을 민간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개방해 도민 소득 창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영암·완도 '도시재생사업지' 선정

전국 26곳...전남도, 2026년까지 513억원 투입 인프라 개선

영암과 완도가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16일 열린 제 31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전남 2곳을 포함한 전국 26곳이 신규 광역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은 ▲영암 '향교로 가는 길, 정다운 고통마을' ▲완도 '다시 시작하는 마을 급일' 등 2곳이다.

이들 대상지역에는 오는 2026년까지 국비 150억원과 지방비 100억원, 부처연계사업비 203.7억원, 민간투자 1.4억원, 지자체사업 57.7억원 등 총 512억 8000만원이 투입된다.

전남도는 사업 발굴을 위해 도시재생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현장·발표평가 등 광역 선정평가를 거쳐 후보사업 4곳을 1차 선정해 국토부에 제출했고 이후 실현가능성·타당성평가 및 국

비지원 타당성 검증 등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2곳이 선정됐다.

전남도는 이번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쇠퇴한 원도심 정비, 생활 인프라 확충, 센터 조성 사업 등 골목상권 활성화와 정주환경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역민 삶의 질 개선 및 도시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생사업 광역 공모 선정은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 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규 선정된 2곳과 진행 중인 69곳의 도시재생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한 도시재생사업은 지금까지 전남 22개 시·군 92곳 9253억원이 선정돼 23곳은 완료된 상태로 69곳에서 기반시설 정비, 지역 상권 활성화, 청년창업 공간조성사업 등이 진행 중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광주 30개 기업 '수출 탑' 수상

市, 무역의 날 유공 포상 전수식...17명 유공자 포상

광주시는 15일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광주 율리데이인 호텔에서 제59회 무역의 날 기념 수출의 탑, 유공 포상 전수식을 열었다.

8억달러 수출탑을 받은 한국 알프스와 1억달러 탑 수상 업체 엔에이치인터내셔널 등 30개 광주 기업이 올해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세립전자와 동진기업은 3000만달러탑을, 금명하이텍, 에이치에이글로벌 등은 1000만달러 탑을 받았다. 우주식품과 신라에프데이, 아이지스와 지티월드 등이 각 700만달러탑과 500만달러탑을 수상했다.

또 금속절삭가공 업체인 금명하이텍 서인명 대표이사도 산업포장을 받는 등 기업과 유관 기관 임직원 17명도 수출 진흥 유공 포상을 받았다.

장춘상 광주전남기업협회회장은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반도체, 자동차, 금형 등 광주 기업이 크게 기여했다"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업계, 지자체, 유관기관 등 모두가 수출 진흥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인구감소 대응 사례 '최우수'

청년농업인 육성 등 호평...강진·진도군과 특교세 총 15억 전국 최다

전남도가 행정안전부의 '2022년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기관표창과 함께 특별보부세 5억원을 받게 됐다. 전남도는 경진대회에서 '청년농·어업인 1만 명 육성' 사례를 발표했다. 청년농·어업인 1만 명 육성은 민선 8기 공약이기도 하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청년 농·어업인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1000명 이상의 청년농·어업인 육성이 절실하다는 점과 농·어업 진입부터 소득 창출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발표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경진대회는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와 89개 인구감소지역, 18개 관시지역을 대상으로 공모가 이뤄졌다. 응모한 사례 115건 중 1차 서면 심사와 2차 경진대회 발표심사를 거쳐 17건(광역 2·기초 15)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우수

사례별로 1억원에서 5억원의 특교세를 지원한다. 강진군은 '푸소(Fu-so) 운영으로 농·어·수산물 수출과 생활인구 증가'로 최우수상을, 진도군은 '마을공동체를 통한 지역활력' 사례를 발표해 장려상을 받아 특교세 5억 원을 각각 지원받게 됐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농·수산물 생산의 중심지인 전남이 매년 청년농·어업인 1000명 이상을 양성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30% 이상이 감소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속가능한 농·어·농어촌을 위해 후계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2022-2023)으로 광역계정 최다인 882억원을 포함 총 3080억 원을 확보했다. 행정부지사는 단장으로 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전담반(TF)을 구성해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장애인고용공단 광주디지털훈련센터 개소 15일 광주시 서구 양동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디지털훈련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광주 인공지능 전문가 302명 배출

인공지능사관학교 3기 수료식...다음달 4기 교육생 모집

3기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가 9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302명의 인공지능(AI) 전문 인재를 배출했다.

올해는 현장 맞춤형 인공지능(AI)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모집인원과 교육시간을 늘리고 커리큘럼을 대폭 개선한 덕분에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15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3기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 수료식 및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이경록 정

보통신산업진흥원 본부장, 임차식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차준섭 스마트인재개발원장, 한대철 한국표준협회 본부장, 엄형태 ㈜엘리스 이사, 인공지능(AI) 기업, 3기 수료생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선 특히 NHN(주), 상용정보통신(주), 대신정보통신(주) 등 22개 기업이 참여하는 채용박람회도 동시 개최돼 수료생에게 구인 정보 제공, 현장면접, 상담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3기 사관학교는 국가인공지능(AI) 집적단지 조성에 따른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180명이었던 모집인원을 올해 330명으로 늘렸으며, 모

집 당시 전국에서 772명이 입교를 희망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교육운영기관으로 스마트인재개발원·한국표준협회·엘리스(Ellice)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집적단지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2단계 고도화 진입을 앞두고 있다"면서 "광주는 인프라, 기업, 인재 3박자를 갖춘 인공지능(AI) 중심도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실리콘밸리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 과정의 주역"이라고 격려했다.

광주시는 2023년 1월 4기 사관학교 교육생을 모집할 예정이며, 교육생, 운영위원회 의견 등을 바탕으로 성과와 미비점을 분석해 교과목 조정, 프로젝트 주제 다양화 등 한층 수준높은 교육과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2023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모집

Passion
Vision
Truth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학 과	모 집 인 원
인 문 사 회	신 학 과	23
	한국어교육학과	2
	복지상담융합학부	10
사 범	유아교육과	3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6
총 계		44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교사고(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 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2. 12. 29(목) ~ 2023. 1. 2(월)
- 전 형 일: 2023. 1. 9(월)

대 학 원 추 가 모 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 집 인 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성경연구학과(Th.M.)	○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
		목회학과(D.Min.)	○
		유아교육학과(D.Ed.)	○
		코칭심리학과(D.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코칭심리학과(M.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M.A.)	○
국제대학원	석사	재활심리치료학과(M.A.)	○
		사회복지학과(M.S.W.)	○○
국제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
		한국어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
		휴먼서비스교육학과(M.Ed.)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3. 1. 25(수) ~ 2. 3(금)
- 전 형 일: 2023. 2. 6(월)

1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